

새만금개발청, 「글로벌 RE100 추진 현황과 새만금의 과제와 역할」을 주제로 RE100 전문가 강연 실시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의겸)은 새만금을 **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**하기 위해 **알이백(RE100) 산업단지 조성**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,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.

-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, “알이백(RE100 :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% 사용)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”이라면서,
 - “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**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**과 **지속 가능한 미래**를 위한 **탄소중립 실현**을 위해 알이백(RE100) 산업 단지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 - 이어 “알이백(RE100)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,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*을 통해 탄소중립(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)을 실현해야 한다.”라고 덧붙였다.

* (Apple) 2018년 RE100 달성 →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, (Google) 2017년 RE100 달성 →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협력사들에게 2029년까지 RE100이행 요구, (현대차그룹) 2022년 RE 7 달성 → 2045년 탄소중립 목표, 협력사 대상 입찰 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반영 등

-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“이번 강연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알이백(RE100)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정보민원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옥연	(063-733-1100)
		담당자	서기관	홍수환	(063-733-1115)

